

더불어민주당 54%, 국민의힘 16%... '투표하겠다' 89%

정당 지지도

>> 2면에서 계속

▶지지 정당 민주당 강세 뚜렷=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민주당 강세 현상이 뚜렷했다.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묻는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절반을 넘는 54%로 상대 정당에 여유있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 이어 ▷국민의힘 16% ▷조국혁신당·개혁신당 각각 2% ▷진보당 1% ▷그외 정당 1% 등의 순이었다. 나머지 19%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, 모름 또는 답변을 거부했다.

민주당은 ▷18-29세 (25%) ▷30대 (54%) ▷40대 (75%) ▷50대 (67%) ▷60대 (50%) ▷70대 이상 (46%) 등으로 전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고, 제주시갑 (55%)과 제주시을 (56%), 서귀포시 (53%) 등 전 지역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.

반면 국민의힘의 연령별 지지율은 ▷18-29세 (18%) ▷30대 (14%) ▷40대 (4%) ▷50대 (11%) ▷60대 (26%) ▷70대 이상 (29%)에 그쳤고, 지역별 지지율도 제주시갑 (16%), 제주시을과 서귀포시 각각 17%에 머물렀다.

민주당, 전 연령층·전 지역에서 우위

조국혁신당·개혁신당 각 2%·진보당 1%

‘지지정당 없다’ ‘모름’ 등 부동층 19%

도의원 지지율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앞서

▶도의원 선거도 민주당 선호도 높아=풀뿌리 일꾼인 도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도 민주당 강세 흐름이 읽혔다.

각 지역구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중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결과 민주당 후보 지지 응답이 절반이 넘는 56%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. 이어 국민의힘 18%, 조국혁신당 4%, 무소속 3%, 개혁신당 2% 등의 순이었다. 지지 후보가 없거나 응답을 거절한 부동층은 15%였다.

민주당 도의원 후보 지지 응답은 18-29세 (33%)와 70세 이상 (44%)를 제외하면 대다수 연령층에서 50%를 넘었다. 국민의힘 도의원 후보 지지율은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의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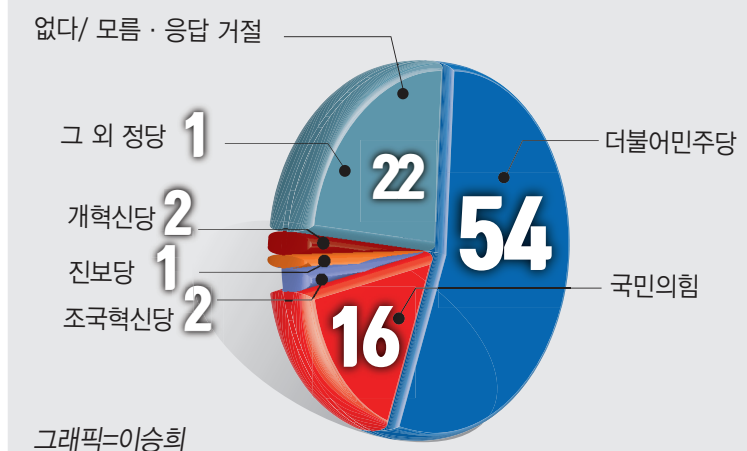
다가오는 6·3지방선거에서 ‘반드시 투표

하겠다’ 또는 ‘투표할 것 같다’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89%로 조사됐으며 9%는 ‘투표하지 않겠다’거나, ‘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’고 답했다. 나머지 2%는 답변을 거절하거나 모른다고 했다.

한편 한라일보와 삼다일보, 헤드라인제주, KCTV제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공동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2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 (CATI)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.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포인트이며, 응답률은 18.5%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

정당 지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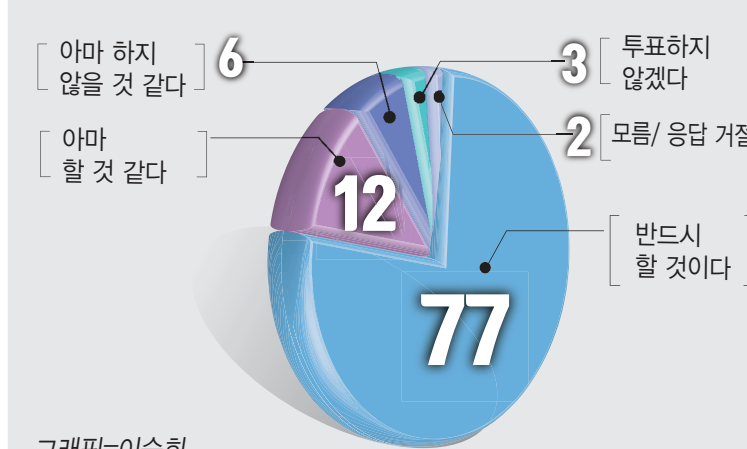
단위 : %



그래픽=이승희

지방선거 투표 의향

단위 : %



그래픽=이승희

다자구도 속 현직 김광수 교육감 35%

제주도교육감 선거

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민을 상대로 실시한 차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김광수 현 제주도교육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라일보와 삼다일보, 헤드라인제주, KCTV제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도내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제주도교육감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광수 교육감이 35%로 5명의 후보군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으며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렸다. 전체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p다.

이어 고의숙 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

고의숙 14%·송문석 9% 순

부동층 34%로 선거 최대 변수

18-29세 ‘미결정’ 비율 높아

‘후보 단일화’ 성사 여부 촉각

14%, 송문석 전 서귀중앙여자중학교 교장은 9%로 나타났다. 김창식·오승식 현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각각 5%의 응답을 기록했다.

제주도교육감으로 적합한 인물이 ‘없다’ (18%)와 ‘모름·응답 거절’ (16%)이라고 답한 부동층은 전체의 34%에 달했다.

김광수 교육감은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등 대부분의 세부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. 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에서 각각 44%로 가장 높았고, 직업별로는 농·임·어업 종사자 (51%), 정치 성향

별로는 보수층 (45%)에서 강세를 보였다.

고의숙 교육의원은 40대와 50대에서 각각 17%의 지지를 얻었다. 지역별로는 제주시을 권역에서 19%로 집계돼, 해당 지역 내 2위를 차지했다. 해당 지역 표본오차는 ±5%p로, 김 교육감이 38%, 송 전 교장 8%, 김창식·오승식 의원 각각 3%의 응답률을 기록했다.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19%의 지지를 얻었다.

송문석 전 교장은 18-29세 연령대 (표본오차 ±9%p)에서 17%를 얻어 김광수 교육감 (19%)과 접전 양상을 보였다. 지역별로는 서귀포시에서 13%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,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11%의 지지를 얻었다.

오승식 교육의원은 서귀포시 (표본오차 ±6%p)에서 10%의 응답을 얻어 송문석 (13%), 고의숙 (9%) 후보와 함께 오차범위 내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. 연령별로는 50대와 70세 이상에서 각각 6%, 정치 성향

별로는 보수 성향층에서 6%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.

김창식 교육의원은 제주시갑 지역 (표본오차 ±5%p)에서 7%를 기록해 고의숙 (12%), 송문석 (6%) 후보와 오차범위 내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.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7%로, 보수층 3%보다 높은 응답을 얻었다.

다자 구도 속에서 이른바 ‘현역 프리미엄’을 안은 김 교육감이 현재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, 부동층의 비율이 높은 점은 변수로 꼽힌다. 부동층 (없다, 모름·응답 거

절)은 특히 18-29세 (48%)와 학생층 (51%)에서 높게 나타났다. 여기에 김 교육감에 맞서는 후보군의 단일화 가능성도 향후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거론된다.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 (CATI)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, 응답률은 18.5%다. 2026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

김재현기자 hakch@ihalla.com

[실제시공이미지]

[실제시공이미지]

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,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.

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!
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, A/S 보장

동서인테리어
건축 / 실내 토발 인테리어 / 욕실 / 거실 / 상가 등
시공문의 064) 758-0015

[실제시공이미지]

[실제시공이미지]

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

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! A/S보장
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
동서가구
싱크대 제작 / 붙박이장 / 침대 / 소파 / 가구 일체
구입문의 064)758-0065

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

빌려주고 못받은돈,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!!

‘한국씨티은행’ 자회사인 ‘씨티크레딧서비스’의 새이름

- 업계 최상 신용조회, 부동산조회 서비스
-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
-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
-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

대상 채권

상사채권 : 물품대금, 공사대금, 용역대금, 외상대금, 투자금 등
민사채권 : 판결문,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
금융채권 :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
채권매입상당 : 금융채권 매도 상담(매입제휴처 연계)

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
무료상담 ☎ 064)702-0500

* 직원모집 : 영업전문직,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.

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
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